



◁4일 국립현충원 내 호국지장사 불자 보훈가족들이 12천 장병묘역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원안은 묘지앞에 나란히 선 독송행렬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 가슴속 눈물 독경으로 달래고...

국군묘지 창설 이후 48년간 현충일 독송법회  
사연도 구구절절... 아픈 마음에 감로수 역할

## 국립현충원 호국지장사의 6월

묘역을 돈다.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묘역을 돈다. 불자 보훈가족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안치된 이곳 '눈물의 묘역'을 돌고 있다. 가슴 속으로, 가슴 속으로 경구를 외워 본다. 힘겹게 한발 한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북받쳐 오르는 슬픔은 가는 걸음을 멈추 세운다. 아니 주저앉는다. 너무나 사무쳤을까? 이들의 간절함은 목탁소리를 타고 현충원 공작봉을 넘고 있었다.

4일, '호국영령 금강경 독송법회'가 열린 날. 국립 현충원 호국지장사(주지 혜성)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열의 뜻을 기리는 법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법회를 연 지도 48년째. 현충원의 전신인 국군묘지가 창설된 55년부터 독송법회를 매년 꾸준히 봉행해왔다.

1시간 남짓, 법회가 끝나자 주지 혜성 스님과 보훈가족들은 묘비를 찾아 앉았다. 지장사에서 떠온 약수 물을 묘비 앞에 올려놓고, 다들 조용히 절을 올리거나 묵경을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다. 울음은 걸잡을 수 없게 묘역에 옮겨 퍼졌다.

66년 12월 10일,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김순녀 할머니(법명 여래장·79세)가 아들 장의상(해병2사단·당시 22세) 병장의 묘를 붙잡고 눈자위를 적었다.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아들이 물어 예기도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가버렸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야속했지. 죽기 전에 남은 거라곤 편지 2통 밖에 없었는데... 내가 의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방 후에 38선이 그어질 때 갓난아이였던 녀석을 포대기에 싸서 남한으로 왔었어. 그런 아들이었는데 말이야. 다시 살아를 거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의상이 유해를 받기 전까지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는 김 할머니. 67년 2월, 아들의 묘역 안치일에 맞춰 강원도 묵호(현재 동해시)에서 현충원 근처 흑석동으로 이사를 왔다. 먼 타국에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들을 품어 가까이 두고 싶어하였다.

"내 업이라고 생각해. 자식 먼저 앞세워 보낸 죄를 참회하려고 지장보살님께 매달리고 있어. 아들과 남편이 다음 생애는 반드시 오래 오래 살게 해달라고..."

절절한 사연은 또 있었다. 마지막으로 눈감는 남편에게 <지장경>을 읽어줬다는 박연순 할머니(법명 대련화·72세). 벌써 31년이 지났건만, 박 할머니는 마음의 응어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가는 길을 마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아내였던 것이 여태껏 사

무친 마음을 편히 놓아줄 수 없게 했다.

박 할머니의 남편 김중문(당시 40세) 육군상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애국심이 투철한 직업군인이었다. 그 후 강원도 하천군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다가 73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순직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6남매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행상이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따지는 대로 일해야만 했다.

"고생한 것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 6남매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부처님께 건강하게 해달고 빌었어. 또 바깥양반 묘비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찾아 왔어. '여보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물었어. 아마도 지하에 있는 양반이 많이 도와 준 것 같아."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박 할머니. 지장사와 인연은 특별했다. 74년 남편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날, 목탁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안장이 끝나자마자 공작 지장사를 찾아가다.

"현충원 안에 절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어. 슬픔에 허덕이고 있는 나한테 그야말로 감로수였어. 요즘 들어 남편의 묘비에서 입 비롯처럼 '당신! 참 쓸쓸하지. 곧 갈게. 우리 죽어서 자유로운 영가 돼서 손 붙잡고 명산대찰로 노닐자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부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6월, 국립 현충원 지장사에서 만난 불자 보훈가족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져 주었다. 한국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졌고,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현충원 내 유일한 종교시설 천도재등 포교 활동에 전력

호국지장사는 지금부터 1,200여 년 전 신라 경문왕 때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 이후 670여 년 전 고려 말 공민왕 때 보인대사가 중창하고 화장사(華藏寺)로 개명했다. 조선 중기 선조 때 국가기원 사찰로 지정해 중수했다. 당시 오성과 한음 두 대감이 이곳에서 공부해 장원급제했으며, 이후 기도 성지로 유명해졌다.

호국지장사는 국립 현충원 내 유일한 종교시설로,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다. 55년 정부가 국군묘지 창설 계획에 따라 철거 위기에 몰렸으나, 당시 조계종 총정과 총무원장을 역임한 정담 스님이 문제를 해결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혜성 스님이 주지로 있으며, 지난 84년에는 지금의 호국지장사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또 대중전 좌측에 지장석불을 최근 조성했으며, 1,200지장보살상을 봉안하는 등 호국 기원 지장도량으로 일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인과 군무원만 안장하다 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96년에는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 현충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호국영령 천도법회 등 불자 보훈가족 포교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영양,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